

# 김세정 “오늘의 웹툰”은 꿈 응원하는 작품

### SBS 새 드라마 29일 첫 방송 웹툰 편집부 배경 오피스물 일본 인기 만화 리메이크

배우 김세정이 '사내맞선'에 이어 다시 한번 SBS 드라마에서 상큼하고 발랄한 매력을 뽐낸다.

김세정은 26일 SBS 새 금토드라마 '오늘의 웹툰'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총행) 2연타라는 집을 안고 싶지는 않았다"고 부담감을 내비치며 "늘 그랬듯 열심히 임했다. 열심히 한 만큼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웹툰'은 일본 인기 만화 '중쇄를 짜자!'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유도 선수 출신 온마음이 부상을 당해 평생 해운 운동을 포기하고 웹툰 회사 편집부에 취직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온마음을 연기한 김세정은 "궁극적으로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는 작품"이라며 "꿈을 혼자서 꾸면 외로운데 조력자가 있으면 힘을 낼 수 있다고 생

각하는데, 꿈을 꾸고 있는 수많은 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해서 작품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꿈이라는 단어가 이뤘을 때면 빛나 보일 수 있는데, 이루는 과정, 이룬 이후 그 모든 것이 예쁘고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며 "드라마가 꿈의 모든 방향을 다 비추고 있기 때문에 에피소드마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온마음은 초공정 에너지가 가진 새내기 편집자로 15년간 풀어온 유도 선수의 꿈을 포기하고도 식지 않은 열정으로 삶을 대하는 밝고 긍정적인 캐릭터다.

김세정은 "저는 꿈을 꿀 때 겁을 먹기도 하는데, 마음은 두려움이 없어서 부럽다"며 "포기했던 꿈도, 새로 꾸는 꿈도 후 없이 온마음을 다해 열심히 하는 친구"라고 백역을 소개했다.

온마음과 함께 입사한 편집부 신입사원 구준영 역에는 남윤수가 캐스팅됐다. 구준영은 인생에 실패를 겪어본 적 없는 엘리트지만, 웹툰이라는 새로운 업무에는 영 적응하지 못하는 캐릭터다.

남윤수는 "신입사원, 오피스, 엘리트 이런 단어들에 마음이 들어 작품을 선택하게 됐고, 신입사원의 마음가짐으로 임했다"며 "많은 사람이 회사에 다니면서 겪을 수 있는 남몰래 고충에 대해 공

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마음과 구준영의 상사인 웹툰 편집부 부편집장 석지형은 최다니엘이 연기한다. 업무적으로는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생활면에서는 '허당미'가 있는 역할이다.

최다니엘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대사들이 있었는데, 시청자분들도 무심히 보다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가슴이 쫄뚫이는 드라마"라고 말했다.

드라마는 최근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는 웹툰을 소재로 하는 만큼 웹툰 제작 업계의 생생한 현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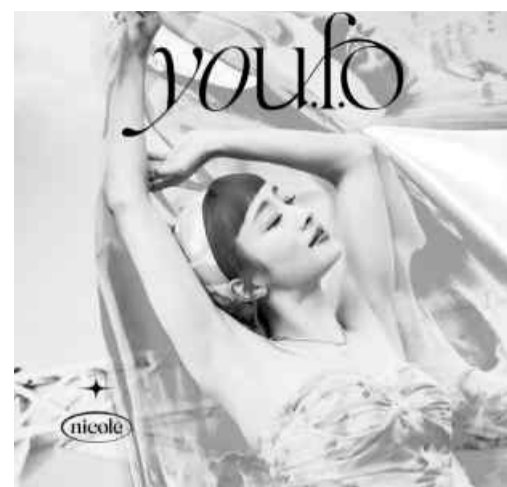
연출을 맡은 조수원 PD는 "웹툰에 대한 관심이 평소 많았고, 웹툰이 뻗어나가는 다양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작품을 선택하게 됐다"며 "웹툰을 소재로 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인물들의 감정을 따라가는데 집중했고, 시청자들이 마음을 통해 작은 재미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밤 10시 첫 방송.

/연합뉴스



김세정



### 카라 출신 니콜 8년만에 컴백 싱글 앨범 'YOU.F.O' 발매

"멤버들이 노래도 너무 좋고 뮤직비디오도 너무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었어요."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니콜은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싱글 '유에프오'(YOU.F.O) 발매 기념 기자회견에서 멤버들과의 돈독한 우정을 과시했다. 니콜은 "(멤버들이) 뮤직비디오 촬영장에도 와서 감독님처럼 '언니는 이런 게 더 이쁘다'고 해줘서 많은 힘이 됐고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음반 이름과 동명인 타이틀곡 '유에프오'는 '미확인비행물체'라는 뜻에 '미확인된 감정'이라는 의미를 더했다. 그루비한 베이스 라인이 특징인 청량한 서머송이다.

니콜은 "새로운 설렘을 맞이했을 때 느끼는 신나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8년 만에 국내 가요계에 컴백한 니콜은 오랜 활동 공백에 대한 어려움도 솔직하게 털어냈다.

니콜은 "(활동 준비를 하면서) 생각보다 가사를 많이 까먹었다"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확실히 내가 신곡을 준비한 지 오래됐구나 싶어서 당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태프분들이 저를 너무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컴백할 수 있을 거 같다"며 "(컴백이) 너무 오랜만인 만큼 지금은 굉장히 설레고 즐겁다"고 덧붙였다.

니콜은 솔로 컴백 소감과 더불어 향후 카라의 활동 계획도 간략하게 설명했다.

니콜은 "카라 멤버들끼리 (카라) 완전체 컴백에 대해) 몇 개월째 꾸준히 기획하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며 "가능하면 올해가 데뷔 15주년인 만큼 (연내에) 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 걸그룹 카라로 데뷔한 니콜은 '프리티걸', '허니', '미스터', '루팡' 등을 잇달아 히트시키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니콜은 2014년 DSP미디어와 전속 계약이 종료된 후 같은 해 11월 미니 음반 '퍼스트 로맨스'(First Romance)로 솔로로 데뷔했다. 이후엔 주로 일본에서 음악 활동을 해왔다.

/연합뉴스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프렌즈 전국 오디션'

#### 다음달 광주·서울·부산서...레이블 연습생·아티스트 선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드라마 극본 공모전과 오디션 등을 통해 IP(지적재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현재 제작 자회사들을 통해 드라마 극본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자회사 메가몬스터는 오는 29일까지 방송 콘텐츠진흥재단, SBS미디어넷과 함께 '사막의 별뿔별 찾기' 드라마 극본 공모전을 열고, 로고스필름은 극본 공모전 수상자를 다음 달 발표한다.

신인 아티스트 발굴에도 집중하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다음 달 광주, 부산, 서울에

서 '2022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프렌즈 전국 오디션'을 개최한다. 오디션 합격자는 카카오엔터 산하 레이블에 연습생으로 선발되거나 아티스트 전속 계약 기회 등을 얻게 된다.

카카오엔터는 2019년에도 매니지먼트 슈, BH엔터테인먼트 등 산하 배우 매니지먼트 회사 6곳과 함께 통합 오디션 '카카오M 액터스'를 개최한 바 있다.

카카오엔터는 "전 세계로 확산하는 K 엔터테인먼트 열풍을 이어가고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들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KBS 새 드라마 '두뇌공조'...차태현 등 출연

KBS가 뇌과학을 소재로 한 코믹 수사 드라마를 선보인다.

KBS는 드라마 '두뇌공조'의 제작을 확정하고 배우 정용화, 차태현, 곽선영, 예지원 등을 캐스팅했다고 25일 밝혔다.

'두뇌공조'는 서로 못 죽여서 안달 난 신하루와 금명세가 희귀 뇌 질환에 얽힌 범죄 사건을 같이 해결하는 코믹 수사극이다.

정용화는 금수저 의사 집안의 뇌신경과학자 신하루를, 차태현은 인간적이고 착한 성격을 가진 형사 금명세를 연기한다.

곽선영은 특정 사건으로 인해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소심한 범죄면수사관 설소정으로, 예지원은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소유한 금명세의 전 부인 김모란으로 분한다.

내년 상반기 방송 예정.

/연합뉴스



정용화

차태현

곽선영

예지원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